

주님의 은혜는 모든 가정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환자를 고치실 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사람의 집과 공동체로 돌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가정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가정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가정에도 그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건강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건강함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모든 가정이 건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인도자

찬송 197장, 293장, 370장 (중 택1)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 아 멘 -

예배 후 조상들이 남긴 믿음을 서로 이야기하며 그분들의 유덕을 기릴 수도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2024

중추절

감사예배



2024 중추절 감사예배



가능하면 가장이나 신앙의 연장자가 예배를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목도 마가복음 12:28-31 (말씀은 인도자가 낭독)

찬송 270장, 288장, 301장 (중 택1)

성시교독 인도자: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회 중: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인도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회 중: 너희 자신들이 기쁨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인도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회 중: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다같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 아 멘 -

기도 가족 중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명절인 추석을 허락해 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예배의 자리를 사랑하고 지키며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만 섬기며 따르겠다고 말하면서도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곳에 가서 도움을 구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다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나아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온 가정이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명절을 맞이하는 모든 주의 백성에게 같은 은혜를 내려 주사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 아 멘 -

성경봉독 누가복음 5:12-16

- 12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 13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 14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 15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 16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말씀 주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사보다도 고칠 수 없는 병, 마음의 병, 더럽고 악한 영에서 고쳐주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셨기 때문에 교회도 고침의 사역을 이어받았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은 주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모든 가정에는 어려움과 상처가 있습니다. 가정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정에 찾아와 주실 때 그곳에 치유와 변화가 있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본문 12절에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한 나병환자처럼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 나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따뜻한 손으로 배를 만져주시면 덜 아프고 실제로 나옴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주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기만 해도 감동이 있을 때,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의 울림이 있을 때, 이것이 주님이 만져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함께 만져주심의 은혜를 누리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실 때 그곳에 나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